

우리 사이 모든 것이

용기 영전에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비탄과 윤패(幽閉)의 계절이다. 이 무명(無名)의 계절 속에서 번뇌 즉 보리(煩惱卽菩提)라는 말을 되새겨본다. 아직은 무명 속, 즉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다. 스스로를 윤패하여 백 여덟 가닥의 번뇌의 실마리에 얽히며 산다. 너를 잃고 나를 잃고, 너를 붙들고 나의 슬픔을 붙들고 산다. 번뇌는 성불하는 마음이라나. 불교도가 아닌 나는 무슨 뜻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다. 내가 아는 것은 너를 잃고 더욱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집념뿐이다. 너의 죽음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직 너를 잃었다는 실감이 없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실신하고 이어 실명하고 시력이 돌아올 무렵 다시 낙상하여 척추골절이라는 증상을 입고 일년 이상이나 판자 위에 붙들어 매달려 심한 고생을 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너를 잃었다는 실감이 뼈에 사무치는구나. 달이 뜨고 해가 지고 구름이 가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이처럼도 서러우랴. 네가 없는데, 네가 없는데 해가 뜨다니, 별이 반짝이다니, ——모든 것이 무슨 배리(背理)같이만 느껴진다.

이미 영성(靈性)만을 지닌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형성되기 전에 뜻에서 벌써 감득하겠지. 그러므로 구구절절 적어가는 이 글월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부질없는 것인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네가 보내는 편지에는 어김없이 답장을 썼던 어쩔 수 없는 버릇 때문에, 네가 띄운 마지막 편지에 받은 사람 없는 글월을 적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네게로부터 소식이 없을수록 더욱 애타게 펜을 들던 그 버릇대로 나는 또 답장 없는 너에게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애끓는 편지를 쓰리라.

이 세상에서 네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나는 이제 아주 외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몹시 긴장되고 피곤한 미국 대학병원 생활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니 부모님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온통 우수와 감정 투성이의 내용이 저를 몹시 뒤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전연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적응의 시간입니다. 하여간 모두가 다 너무나 질던 정, 겹겹이 맺힌 아픈 사랑의 탓입니다. 「바우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납니다」——이런 시(詩) 노래가 없으면서 발전된 미국생활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나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앉아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들을 간추려 정리하기가 매우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추억이란 출렁이는 물결 속에 살고

시간 속에 고향을 갖지 않는 것——

릴케의 마음을 발레리는 「풍부한 부재(不在)」라고 했겠지요. 저에게는 위안이 되는 말입니다.

다시 지난날들이 산만히 찾아드는 조용한 한밤중입니다. 이 자라는 과정에 언제나 몰아치는 착잡함입니다. 사랑이란 꿈꿀 때 가장 행복하고 확신을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 같습니다.

달같이

연륜이 자라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 하나 뻗근히
연륜이 피어나간다.

비슷한 형의 시가 생각납니다.

꿈

부슬비 내리는 아침에
꿈에 본 여인을 그린다.
어떤 곳에 있었나
의식이 흐려진 나라
아름다운 나라
좁다란 나라
동굴을 지나
험한 낭떠러지를 올라
해골, 바람, 죽음이 있던 동굴이
나를 아늑히 해주었던 것은
어느 태초의 조화였다.
담뱃 웃음을 머금은 여인은
그저 여인이었다.

.....

나의 괴로움을
기쁨을 지닌 꿈에 본 여인
오늘 아침 뿌듯한 봄비가 내릴 줄
그때는 몰랐다.
그래도 꿈의 인연은——
나를 비를 맞으며
여인에게로 갈 거다

.....

새로운 삶의 절규, 죽음, 사람을 만나고 보내고——나에게 과해진(또 나 자신이 스스로 택한) 이 직업이 저에게 주는 의미의 벽참과 우리들 생활의 어쩔 수 없음의 인식의 강요(強要)가 저를 몹시 괴롭힘은 저의 단순한 약함과 유약한 감상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데 인간적인(인간 이상이 아닙니다) 승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힘껏 자라야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태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조금씩 냉정함에 익숙해갑니다. 많은 갈등을 느끼고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안심하세요.

멀리서 저의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The deeper and deeper of everything between us 용기 드림

사랑하는 용기야! 이 편지 앞에서 나는 할말이 없다. 그저 길어내도 길어내도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처럼 사랑과 슬픔이 괴어올 뿐이다. 「모두가 다 너무나 질던 정, 겹겹이 맺힌 아픈 사랑의 탓」이라고 너는 벌써 말하고 있지 않는가.

너의 말대로 너와 우리 사이는 네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다. 너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실신하면서 절규한 네 이름 「용기」는 그 순간부터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워버렸다. 별들이 어느 한점을 회귀(回歸)하듯이 나의 모든 상념(想念)은 너에게로만 되돌아가, 그래서 이 윤회의 계절은 너와 나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다.

너의 사건은 끔찍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비탄과 사랑이 이처럼 순수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은 사랑이란 말을 너무 흔히 쓰지만 기실 사랑으로 하여 깊은 상처를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일상(日常)이 사람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놓아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서로의 사이에 깊은 심연을 보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어쩌면 사랑이란 배반을 잉태하며 은밀히 그 씨를 키

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변변치 못한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존경과 사랑」을 보내준 너에게 마음 속으로부터 감사하면서 다시 없이 아름다우면서 또 한없이 두려운 인간의 사랑을 아파한다. 그리고 나에게 아물지 못하는 상처를 준 것은 너를 잃은 일뿐이 아니고 배반이 없었기 때문에 티없이 순수했던 슬픈 사랑이기도 했다는 것이 사무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욱 아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어리석은 어머니다.

우리는 곧잘

太陽의 광채와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틀리는 표정에 지나지 않는다.

운명은 달콤한 것이나 쓴 것이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양식으로 하는 것이다.

했었지. 또,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완전한 헌신 없이는 못하는 거야.」

네 자신의 말인지 남의 말을 빌어왔는지 너는 그런 말을 잘 했었다.

「열심히 사는 거야. 좋지 않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실로 열심히 정성을 들여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름다와보여.」

너는 참 열심히 살았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한 통의 편지만 읽어도 나는 너의 생애를 알 수가 있다. 「많은 갈등을 느끼며 이겨나가려던」 청년의 모습이 생생하게 엮어져 있는 글월, 너는 그 편지를 어찌면 며칠을 두고 썼겠지. 한 통의 편지지만 잉크빛이 몇가지로 다르구나.

나는 그때 미국에서도 손꼽힌다는 홈즈 병원의 병실이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이 얼마큼 깊어 있었다. 숲에 싸인 미국 중동부에 자리잡은 그 도시는 차도에까지 낙엽이 깔렸었다. 독일 이민들이 모국의 하이델버어그를 본받아 건설했다는 그 도시는 하이델버어그처럼 강을 안고 아름답다고 했지만 네가 「택한」 직업은 시간을 주지 않아 너만이 의지하던 어머니는 종내 방향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다.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이 바라다보이는 호텔의 창가에 서서 연인을 기다리듯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렸다.

넓적넓적하게 터를 잡은 탓인지 집들은 단풍진 높은 나무로 얼마큼씩 가리워져 거리는 숲속 같고 혼자 선 창가의 나그네는 가을의 여정에 젖기도 하였다. 토실토실 살이 쥔 고양이만큼이나 큰 다람쥐들이 꼭예사처럼 부산히 가지에서 가지에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파적(破寂)이 되는, 답답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무효는 너의 너무나 바쁜 생활을 볼 때 차라리 송구하기만 하였다.

용기는 너무 바빴다. 미국의 대학병원 제도에 의해 레지던트인 그는 한 병동의 환자들을 맡는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만 입게 되어 있는 것 같은 흰 웃저고리와 흰 바지를 곧잘 입고 거리까지 나왔다. 용기도 갈아입을 틈이 없다면서 흰웃차림으로 호텔에 어머니를 찾았다. 이곳에는 많지 않은 동양여성을 찾아오는 흰웃차림의 동양청년이 대학병원의 의사인 것을 알면서부터 호텔 종업원들은 친밀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택한」 직업은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피부로 느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용기는 흰웃을 벗고 왔다.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거리에 나간 아들은 차를 몰며 찢찢매었다. 어머니는 비로소 그가 전연 길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통 시간이 없어서요. 가본 테라곤 우편국, 슈퍼마켓, 콘서트홀, 그리구 몇몇 의사와 음악가의 집——하지만 그런 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구 가서——」

용기는 무척 송구해 하였다. 우리는 거리를 빙빙 돌다가 럭키스트라이크라는 간판이 붙은 레스토랑 앞에서 차를 멈추었다. 머리를 길게 기른 저지차림의 젊은이들이 몇은 창문에 기대서고 몇은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스름한 불빛에 그들은 쓰레기더미같이 보였다.

「히피들이구나.」

어머니가 말하자 용기는,

「어머니가 싫으시면 판테를 좀 찾아보지요.」

그러면서 내키지 않는 말투였다.

「히피는 다시없이 천량하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하자,

「해를 끼치지 않는지 누가 알아? 무엇에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속에서 피아노가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었다. 역시 귀밑까지 머리를 기른, 맨발에 고무 조리를 걸친 깡깡 마른, 연령과 남녀를 분별치 못할 사람이 앉은 채 몸을 꺾었다 폈다 하며 전반을 부서지도록 두들기고 있고 넓은 안경으로 얼굴을 반 이상이나 가린 형상의 다른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몸짓을 하며 고향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 언저리에는 비슷비슷한 모양의 젊은이들이 둘러 앉아 가끔 느닷없이 놀랄 만큼 큰 소리를 질렀다간 툭 그치곤 하였다.

저녁식사 시간으론 밤이 너무 깊어 있어 식탁 쪽은 한산했지만 젊은이들의 소동은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용기는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음향에 남달리 예민한 그는 소음이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레스토랑에서도 저런 짓들을 하나. 식사손님들을 괴롭히는 것아냐.」

오히려 내가 투덜대었다. 그러나 용기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다. 무너지는 것 같은 앉음새였다. 중년이 넘은 웨이트레스가 다가왔다. 용기는 메뉴를 내게로 밀치며,

「뭐를 하실래?」

쉴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전의 그를 잘 아는 나는 용기도 어느새 미국의 소음에 익었나부다고 미소로왔다.

날려온 비프스테이크를 그는 어머니가 삼분의 일도 먹기 전에 허겁지겁 다 먹어치우고 어머니가 남긴 분까지 집어먹었다.

「시장했었구나.」

「응,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런, 건강이 제일이지. 먹구 자는 것은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졸려서요. 어머니, 정말 잘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긴장하구 살아야거든요. 그런데 양놈들이 사람을 쫓리려구 호시탐탐이거든. 글쎄 환자 앞에서 어려운 질문을 한단 말야. 학생들 앞에서두. 응, 유태인 인턴 하나가 늘 말썽을 부리군 과장한테 고자질두 허는 모양이야. 그래서 공부는 오히려 잘된다구요. 하영든 어디를 쫓려두 막아낼 수 있게 저널 걸은 것두 살살이 읽기루 하구 있어요.」

그는 소리를 한층 높였다.

「나는 개들헌데 지기 싫단 말야. 팽팽하지, 뭐, 언제나.」

「왜 괜히 미워할까.」

「기질이지 뭐. 그리구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내 밑에 있거든요. 싫겠지요.」

「그래두 잘 지내야 한다.」

「괜찮아요. 하영든 낮에는 낮대루 그 모양이구 내 자신의 공부 두 해야 하구.」

만복이 된 그는 비로소 배를 내밀듯이 허리를 펴고 피아노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천천히 하지 그래.」

「어머닌 모르신다구. 의사는 공부하러 오긴 온 거지만 학생이 아니구 사회인이라우.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구 의사의 비자 기간은 사년 간이란 말예요. 사년 안에 난 해볼 테야.」

「뭣이 그리 다급하단 말이냐.」

「의사로서의 경험도 충분히 쌓구 하루하루 빨리 보우드를 따야 허거든.」

용기의 눈은 흐릿한 불빛 아래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계집애같이 곱게 쌍꺼풀이 진 눈을 반짝거리며 그는 히피들의 소음을 누르듯 좀 고조된 음성으로 열심히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의사들의 권익을 위하여 제도가 짝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의

국 의사들은 보우드(전문의 자격) 시험공부를 충분히 할 시간이 없다. 체재 기간은 사년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일과는 촌가(寸暇)를 얻기 어렵게 한다. 사년은 후딱 지난다는 것이다. 멀리 미국까지 와서 전문의도 따지 못한다면 얻은 경험의 귀중함마저 무의미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비자 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누구나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사 중에는 캐나다로 일단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우드시험을 보기도 허구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게 된 어린 아들딸에게 엉뚱한 병을 만들어 그걸 핑계로 보호자로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신청허기두 허구—— 하영든 요지경이야.」

그는 머리를 절절 흔들었다.

「그래 너는 어쩔래.」

「나? 나는 딱 서있어요.」

그는 고개를 약간 쳐들었다.

「어머니, 나는 말야, 응.」

어릴 때처럼 꿈꿨으며 용기는 열심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도미한 지 아직 일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나 내년이면 이 년생 레지던트가 되고 다음해에는 켈로우가 된다. 그는 이 년생 레지던트가 되기 전에 스테이트 보우드(주 전문의 자격)를 우선 따놓겠다는 것이다. 열중하여 말하는 내용을 어머니는 더러는 알아듣고 더러는 놓쳤다. 어쨌든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은 오직 단 한마디 뿐이었다.

「신의무물(身外無物)이라지 않아? 몸이 켈이야. 잘 먹구 잘 자구.」

「하하하……어머니두. 잘 것 다 자구 먹을 것 다 먹구 어떻게 똥을 한단 말야.」

용기의 일상은 그의 말대로였다. 그러면서 꺼칠한 얼굴을 하고 그는 심야에도 호텔을 찾았다. 어떤 날 밤에는 켈로를 들고도 왔다.

「어머니, 음악을 들려줄께.」

옆방 사람들을 꺼려 약음기(弱音器)를 끼고 그는 첼로를 쳤다. 보케리니, 탈로, 그리고 특히 사랑하던 바흐 무반주조곡을 번갈아가며 켜면서 처음에나 끝에는 언제나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여학교 시절을 30년대에 가졌던 어머니는 독일 낭만파 작곡가의 이 곡을 좋아하여 용기는 언제나 「어머니의 트로이메라이」라고 하면서 놀렸다.

우리는 질어가는 가을 속에서 밀착하여 지냈다. 바쁜 중에도 그는 날마다 왔다. 그 시각이 새벽도 되고 오전 두 시도 되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열매가 못되어 위호주머니에 꽂힌 만년필형의 무전기를 통하여 「닥터김, 닥터김」하고 찾는 소리가 그를 쫓는 것이다.

미국의 환자, 특히 흑인환자는 참을성이 없단다. 노상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가슴의 무전기는 거의 쉴새없이 「닥터김」을 연호(連呼)하는 것이었다.

어느날 밤 무전기가 또 「닥터김」을 찾자,

「아마 짐아저씨가 찾는 걸꺼야.」

일어서면서 용기는 무전기를 조정했다. 소리를 지르던 무전기가 잠잠해졌다.

「짐아저씨가 누구냐.」

「흑인 심장병 환잔데 아마 오늘밤쯤 죽을꺼야.」

놀람도록 냉철한 어조로 무서운 소리를 용기는 태연히 했다. 어머니가 미처 몰랐던 그의 일면이었다.

「너를 왜 찾니?」

「내가 주사를 하면 편해진다나. 어머니 그 사람 흉내내 볼까.」

용기는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비익(鼻翼)을 오므렸다 퍼뜨렸다 하면서 호흡곤란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정말로 박진하도록 생생하게 흉내를 냈다. 목구멍에서는 단말마 같은 걸걸거리는 숨소리까지 새어나게 했다.

「아마 오늘밤이 마지막일 꺼야.」

일단 침묵했던 무전기가 또 소리를 질렀다.

「닥터김, 닥터기임.」

용기는 일어섰다.

「또 올게요, 어머니. 오늘밤은 짐아저씨가 죽는 밤이니깐 어서 가줘야 돼요. 통 말을 듣지 않아 속을 썩혔지만 되도록 고통을 덜어주겠어요. 의사란 결국 이겨거든. 고통을 받는 사람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그것은 사명이야. 나는 좋은 의사가, 진정으로 좋은 의사가 되구 싶어요.」

그는 의학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짐아저씨는 죽지 않았다. 그는 네가 죽은 후 한 글자 한 글자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진정이 넘쳐 흐르는 조장(弔狀)을 보내왔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는 어머니를 고쳐주겠다고 심장 내과과장을 택한 너는 어머니를 두고 가버렸다.

죽음이 무얼까. 네가 죽은 후 어머니는 그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생리적(生理的)으로는 심장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사멸해 버린 상태라고 들었다. 너 같은 사고가 없더라도 사람은 죽는다. 서서히 죽어간다. 산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일 거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무결한 공평(公平)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일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사멸을 뜻하는 죽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도 죽어본 사람은 없으니깐 죽음을 체험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숨쉴 때마다 비익을 펴뜨렸다 오므렸다 하며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짐아저씨도 하루하루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죽어 버렸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깐 「죽을」 고생이란 생(生)의 과정에 있어서의 한 체험이지 죽음의 체험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저세상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깐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따라서 죽음은 「삶의 한 수단(手段)」이라고 생각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죽음이란 그런 순리적인 것이 아니고 역시 운명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너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이성을 잃고 나 자신을 잃고 진정 미쳐버릴 어머니지만 노을이 흐르는 저녁하늘을 볼 때라든가 구름 그림자가 지나는 들을 생각할 때 유연히 솟아나는 슬픔이 퍼져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아름다운 노을에도 지나는 구름 그림자에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의 투영(投影)을 보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이라 하고 삶이나 죽음이나 허무한 우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종내 너의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에게 무진장 스님은,

「어느 날 저녁 지나던 뭇새들이 날이 저물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큰 나뭇가지에서 함께 밤을 새웠지요. 날이 새어 그 새들은 날아가 버렸지요. 그뿐입니다. 모였다 날아간 것뿐, 회자정리(會者定離)요.」

잊어 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자정리의 이치를 알면서 헤어진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이 인간의 정이 아니겠느냐. 모든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모자의 인연이 너무 아름답고 절절하고 질기다. 뿔다 스러지는 한조각 구름의 추억에조차 아름다웠다든가 아쉽다든가, 감개가 어찌 없으랴. 하물며 스스로의 태 안에서 사람이 되고 내 몸의 정(精)을 먹고 자란 자식에 있어서랴.

아침에 까치가 우는 날이면 너의 편지가 오리라고 기다렸었다. 첼로 소리를 들으면 너의 도취한 듯한 얼굴을 그려보았었다. 연한 고기를 보면 먹이고 싶었었다. 알맞은 목욕물, 깨끗한 속옷, 뜨거운 커피향기, 싱그러운 사과알—— 너에게는 무엇이든 주어야 했다. 죽은 사람의 위패 앞에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바치는 이를 누가 어리석다고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절실히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구(無垢)한 아기들은 스스로의 궁금함의 증대성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 어려운 질문으로 어른들을 곤혹시키는 것이다.

「엄마, 나는 어떻게 낳았지? 애기는 어떻게 생기지?」

물음을 받은 어머니들은 언제나 당황해한다. 사실 순진한 아기들의 무심한 이 물음처럼 증대한 문제가 또 있겠는가.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해답이 나오건 어머니들은 어떤 운명적인 순간에 애기

를 운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은 무량(無量)으로 키 간다. 열 손가락의 어느 하나를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없듯이 열 애기 하나하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도 또 다른 애기에게 줄 것이 남는 것이다.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고 한다. 끝없는 윤회(輪廻)의 고리고리를 천번은 거대한 인연이 부부란다. 모자의 인연은 억겁(億劫)을 넘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두고 가는 자식을 불효라고 불러야 된단다. 그러나 억겁 인연을 배반해야 했던 자식의 슬픈 죄를 어찌 탓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를 두고 가는 자식은 전생의 원수라 합니다. 사무치는 원한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해줌으로써 갚는 것이지요.」

이런 말을 위로랍시고 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러나 움이 나면 썩어 짧은 생명의 거름이 되는 늙은 나무를 생각할 때 살아남는 어머니는 차라리 부끄럽다. 이 위로의 말을 들을 적마다 얼마나 인간이 「아(我)」라는 것에 무섭게 집착하는가를 새삼 깨닫고 소연해진다.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운명을 서러워할 따름이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뿐, 너의 명복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비는 일뿐이다.

주여 그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소서.

빗속을 장선생 부인이 찾아왔다. 흰 치마 아랫도리가 온통 젖어 있다. 치마뿐 아니고 머리도 어깨도 젖어 있다.

「이렇게 젖어서 어떡하죠.」

그는 송구해 하면서 버선을 벗고 기순이가 갖다 놓은 걸레에 발을 닦는다.

「이 우중에 웬일이세요.」

「글쎄 오늘이 그애 생일이라서 사모님 생각이 나더군요.」

말을 하며 우묵하게 들어간 눈에 눈물이 된다.

「국군묘지에 갔다오셨군요.」

그는 대답을 못하고 손을 눈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다가 얼른

마음을 돌이킨 듯이 이그러진 얼굴로 웃는다.

「죄송합니다. 통 참을성이 없어서.」

눈과 코끝이 빨개진 그를 보며 어머니의 가슴도 찢어진다.

「그애는 개피떡을 좋아했드랬어요.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제게 두 놈 주구 에미두 먹구 했지요.」

좀전에 찾아와서 대청에 앉아 있던 이부장 부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나는 그의 사연을 잘 안다. 장선생 아들은 군복무중에 죽었다. 막사 위를 지나가는 고압선이 늘어져 막사 텐트에 거의 닿게 된 것을 공병인 그가 올라가 줄을 끊으려던 순간 감전이 되어 즉사했던 것이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일년 이상이나 몹시 앓았다. 그래서 지방 근무하던 남편은 부인의 간호 때문에 직장을 내놓고 서울로 돌아와 무진 고생을 했었지.

그와는 초면인 이부장 부인도 같은 처지란다. 그의 아들은 수영 선수였단다. 이년 전 하기방학 때 어느 고등학교 수영반에서 코치를 해달라 하여 그들을 데리고 어느 섬에 갔다가 첫날에 익사해 버렸다는 것이다. 장선생 아들과 같은 스물 네 살이었단다. 이 부인도 아직 성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살이 썩어 보이기만 하지만 피부가 뜨고 잡티가 많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인사시킨다. 그리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동지 같은 심정으로 두 사람의 사연을 일러주었던 것이다.

두 어머니는 어떤 쪽에서 먼저랄 것없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덥에서두……」

「덥에서두……」

말문이 막힌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의 말문이 터진다. 그러자 수십 번이나 되풀이했었을 그 기막힌 사연을 번갈아 늘어놓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용기야. 자식을 앞세운 사람은 참 말이 많아지더구나. 네가 잘 아는 박용원 박사님도 그렇게 말이 없더니 큰 자제가 강에서 익사한 후부터 말이 부쩍 느시더라. 한번만 해버리고 잊기에는 너무나 원통한 사연이기에 입에 담기 끔찍한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것인가.

요즘 와서 우리집에는 같은 일을 당한 어머니들이 많이 모인다. 녀두리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죽은 자식의 자랑도 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죽은 자식이라고 왜 말썽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허물은 말끔히 없어지고 그저 착했던 일 훌륭했던 일만 남은 모양인가보다.

「글쎄 가슴 아픈 것을 보구 왔지요.」

한바탕 아들자랑을 하고 난 장선생 부인이 웃고름으로 눈귀를 누르고 난 뒤 말투를 바꾸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참배하는 사람은 우리 식구뿐인 줄 알았는데 이 비에도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말예요——환갑은 되어 보입디다. 그 노인네가 어떤 꽃말 앞에 우산을 받쳐 주구 서 있잖겠어요, 자기는 흠뻑 젖으면서.」

장선생 부인은 말을 끊었다가,

「그 노인네는 비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달려온답니다. 그러구 비를 맞으면서 아들의 무덤에 우산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월남에서 잃고는 오매에두 잊지 못허구 실성한 사람이래요. 관리인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허더먼요.」

우리는 모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동작동 국군묘지는 정연하게 서 있는 하얀 묘표가 먼 눈에는 하얗게 핀 꽃인양 아름답다. 젊음을 묻었으니 꽃무덤이 아니고 무어겠는가. 어머니들은, 아내들은, 아들딸들은 그 묘표의 꽃들을 눈물로 가꾼다. 햇별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바람이 거세면 거센 대로 그 밑에 잠든 이가 애처로와진다. 그러나 비오는 날처럼 가슴이 아프랴. 외아들을 잃은 그 늙은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비오는 날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간밤에도 오늘같이 비가 왔었다. 바람도 섞였었다. 아버지가 돌아 누우시면서 문득,

「가엾어라.」

하셨다. 이심전심이랄까 어머니도,

「차겠지.」

하고,

「가엾어라.」

진정 억장이 무너졌었다. 그때 나는 미처 우산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이불 속이 역겨워 일어나 버렸었지.

세 어머니는 모두 눈물을 닦았다. 아들을 잃고부터 갑자기 늙어버린 얼굴에는 눈물이 이어 흘렀다. 사랑하는 용기야. 네 기억에도 남아 있을 노할머님은 이야기를 잘하셨었지. 그분은 저승 이야기도 보고 오신 듯 곧잘 하셨다. 죽은 사람은 사자에게 업혀 저승강을 건너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데 염라청까지 가려면 열두 대문을 지나야 한단다. 어느 망자가 사자의 안내로 그 열두 대문을 지나면서 보는 광경을 그분은 하나하나 말해주셨지. 그 열두 대문 중 열 번째 대문 안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대문 안은 꽃밭이었다. 활짝 핀 꽃 피어나려는 꽃봉오리, 그리고 아직 어린 떡잎들이 온통 깔린 사이사이에 흰 옷을 입은 여인들이 보인다. 여인들은 물그릇을 들고 있기도 하고 호미자락을 들고 있기도 한다. 그들은 꽃을 가꾸고 있는 것이다.

망자는 길을 재촉하는 사자에게 잠시 머물다 가자고 한다. 그러나 무정한 사자가 말을 들어줄 리 없다. 그가 끌려서 그곳을 지나려 하는데 한 여인이 물그릇을 땅에 놓고 통곡을 한다. 간장이 녹을 듯 애끓는 울음이었다.

「저 여인은 왜 우는 거요.」

망자가 묻는다.

사자는 짜증을 내면서도 설명을 해준다.

「아따 망자 주제에 말두 많소. 저 여인들은 어린 자식들을 다 기르지 못하고 죽은 여인들이요. 저 꽃들은 두구 온 자식들이구. 여인들은 유명이 다른 곳이지만 전생의 자식들을 저렇게 물을 주구 김을 매어 기르구 있는 거라오. 여인들은 저 꽃들을 보구 전생의 자식들의 사는 모습을 짐작한다오. 꽃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잘 피면 잘 자라구 있는 거구 꽃이 시들면 병이 나거나 잘못되는 거구. 그런데 저 여인의 꽃이 시든 모양이군. 그래서 저렇게 슬피 우는 거라오.」

용기야, 진정, 이곳은 이승인가 저승인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픈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할머니의 그 이야기의 어머니들인 것만 같다. 날마다 새벽미사를 결하지 않는 어머니, 부처님 앞에서 백 번씩이나 절을 하는 어머니,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그 방을 전 모양으로 해두는 어머니, 비오는 날이면 무덤 위에 우산을 받쳐주는 어머니——이러한 어머니들의 비탄을 죽은 자식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부모를 두고 간 자식들이 있는 데는 저승 열두 대문 안에는 없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다. 바깥에 나가지 못해 경난이가 방 안에서 뛰논다. 네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누이의 딸, 호수같이 맑은 눈을 가진 예쁜 아기란다.

「누구를 닮았을까, 응.」

너는 첫 조카에게 유난히 마음을 기울였다.

「사진 봤지 않아?」

어머니가 그러면,

「아직 너무 어려선지 사진 봐선 누굴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에게는 죽음의 예감이 있었던가. 그래서 네 피를 얼마큼 같이하는 새 생명에게 그렇게도 관심을 보였나보다.

그 경난이가 잠깐 한국에 와서 네가 간 후부터 먹구름에 싸여 있던 집안을 얼마큼 밝게 해주고 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한창 재롱을 떠는데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아 그것이 오히려 귀엽단다. 곧잘 말을 주고받다간 가끔 오발을 한다.

「경난이 몇살?」

하고 물으면,

「난난이 몇살.」

아직 경난이란 발음을 못할 뿐더러 두 살이란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경난이 이름 뭐지?」

「이이음(이름).」

그리고 아주 활짝 웃는다. 어머니는 어처구니없이 웃으며 오발을 한 그가 더욱 귀여워진다. 그러면 언제나 너의 아기 시절이 눈앞에 떠오른다.

너는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었지. 하루종일 젖만 먹여놓으면 울지 않고 혼자 놀았었지. 너는 힘이 세었다. 백날 전에 누운 채 위로 솟아올라가 머리맡의 장지문을 발기발기 찢어놓은 일도 있을 만큼 어려서부터 장난도 심했었다. 아아 용기야! 할아버님택에 갈 때마다 후드가 붙은 포대기 속에서 유난히 크고 까만 눈을 깜박거리던 그 얼굴, 그 체온이 아직도 내 품에 남아 있는데 그 체온만, 아픈 추억만 남기고 너는 어디로 갔지?

너는 네 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다. 어느 날 너의 삼촌들이,

「이놈은 병어린가봐. 맹아학교에나 넣어야겠군.」

우리는 그때 맹아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놀림이 나왔나부다. 그러자 그림책을 보고 있던 네가 통명하게 내뱉었다.

「싫어.」

아기들이 흔히 못하는 「ㄹ」발음까지 또렷한 완전한 말이었다. 그러니깐 너는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고 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촌들이 신기해서,

「야 이자식 봐라. 말을 하잖아.」

하고 떠드니깐,

「시끄러. 나 책 읽구 있잖아.」

「이놈 봐라. 이런 엉뚱한 놈이 어딴어.」

너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더욱 귀여운 아기였었다. 팔의 뼈를 아서지도록 부러뜨렸을 때도 통 울지를 앓아서 그 때 문에 다친 것을 몰라 나중에 오래오래 고생을 했었지.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하여 쓴 수필이 남아 있다. 그중에 「용기」란 제목이 있다.

용기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놀고 있다.

「무슨 놀일 할까아.」

한 아이가 말하자,

「호랭이놀이하아자.」

한 아이가 의견을 낸다. 그러자,

「그으래 호랭이놀이하아자.」

모두들 찬성이다. 맑고 건강한 음성들이다. 고달픈 피난살이에
도 아기들은 자란다. 「호랭이」「호랭이」아이들이 연호한다. 그
러나 문제가 생긴다. 아무도 호랭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흥이 깨어지고 놀이는 호지부지해진다.

그때 제일 어린 용기가 나선다. 어리지만 나이보다 크고 실하
다.

「나 호랭이 할래.」

「야아 호랭이 호랭이, 용기가 호랭이야.」

이래서 호랭이놀이가 실현된다. 용기는 큰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꼬부려 가슴 앞에 모으고 으르릉댄다.

「나 호랭이다. 으호응, 으호응.」

시장에 갔다오던 엄마가 이 광경을 본다. 우스꽝스러우면서 약
간 걱정이 된다.

밤에 자리에 들었을 때 젊은 엄마는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한
다.

「지가 켈 나쁜, 남이 싫어하는 역할을 맡아 하찮은 놀이지만
전체를 즐겁게 해주더구먼요. 희생정신은 좋지만 커서두 나쁜 역
할만 맡으면 어떡허죠?」

아빠는 즐리다.

「내버려두어. 그놈 참, 허 우스꽝스럽군.」

아버이란 자식이 훌륭한 일을 하면 자랑스럽고 못된 짓을 하면
불쌍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면 귀엽단다. 너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곧잘 했었지.

중학교 이학년 땐가 부다. 우리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두어 걸음 처져 몇번이고 뒤를 돌아보게 했었다.

「왜그리 걸음이 늦니. 빨리빨리 걸잖구.」

짜증스럽게 말한 나에게 네가 한 말을 나는 지금도 되살려 혼
자 미소한다.

「선생님이 <여자>하고 같이 다니지 말래.」

어머니도 분명 여자는 여자지만 나는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나보다 훨씬 키가 큰 네가 그렇게도 우스꽝스럽고 귀여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늦재주가 참재주라고 말문이 트인 너는 말을 잘했었다. 평소에는 통 말이 없다가 기상천외의 말을 툭툭 던졌다. 네 살까지 말을 못했으면서 중학교 삼학년 때 캐나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적십자 대회에서 최연소자로 참석하여 각국에서 모인 대표 중에서 뽑혀 아시아 대표로 정식 연설까지 했었지.

——뛰놀던 경난이가 잠이 들었다. 우리집은 다시 잠잠해진다. 자동차의 소음도 아직은 그리 자주 들리지 않는 조용한 주택지다. 첼로 소리가 들려온다. 뒷집 아가씨가 켜는 첼로다. 조용한 탓인지 비 탓인지 무척 가깝게 들린다.

보케리니의 협주곡——1악장의 끝이다. 경쾌한 곡이 여기서 갑자기 악상을 바꾸어 유려하게 흐르는, 어머니가 특히 좋아하는 악절이다. 활을 저미듯 경쾌하게 쓰다가 물결에 따라가듯 길게 팔을 뻗어 타는 거기다. 용기는 약간 꾸부리고 있던 등을 여기서 폈었지.

보케리니 협주곡에는 얽힌 사연도 많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일본에 갔을 때였다. 용기는 현미경과 악보를 사다달라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다. 그 악보를 사는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은사인 블라이스 박사를 만났다. 블라이스 박사는 당시 일본 황태자를 맡아 가르치고 있었다. 기구한 결혼생활을 한 바 있다는 그는 약간 괴짜로 보였다. 선문답(禪問答) 같은 말이 한시간 남짓 오간 후에 그가 물었다.

「지금부터 무얼 하시려오.」

「보케리니와 랄로의 악보를 사러 가려 합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는 갑자기 호야(好爺)가 되었다.

「보케리니! 그럼 나두 오늘 오후를 보케리니를 좋아하는 소년에게 바치겠소. 당신은 동경 지리에 어두울 테니깐요.」

보케리니의 악보는 참 얻기 힘들었다. 우리는 몇 시간을 악기점과 서점을 뒤졌다. 지칠대로 지친 끝에 어느 서점에서 랄로와

보케리니를 얻었을 때 블라이스 박사는 늙은 이를 다 드러내어 웃으며 기뻐하였다.

그 악보와 현미경을 받고 좋아하는 용기를 보고 나는 그때의 괴로움을 잊었다.

보케리니는 그때부터 항상 우리집의 음악이 되었다. 용기가 고등학교 일학년 때 음악 콘테스트에 나가게 되면서부터는 용기방창밑에서 노는 동네 꼬마들까지 「땡땡따아땡 땡땡땡땡땡」 하고 그 곡을 흥얼대게 되었다. 연습시간이 모자랐지만 그는 일등 없는 수석 입선을 하였었다.

대학입시 때문에 뜸했던 첼로 소리는 의과대학에 들어가고부터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용기는 의학공부를 해야 했고 첼로를 켜야 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잠이 모자랐다. 그 어느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그는 시달리고 시달리면서 시를 썼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다.

집시

집시

어디까지 왔나

너는 좁은 골짜기를 흐르는

냇물

나의 사랑이 흐르는

냇물

이곳 저곳

따스한 지열(地熱)을

다 적셔도

차지 않아.....

어느 날이었을까

신(神)의 흐린 그림자에 얽혀

황홀을 부른 소망(所望)의 저주

어두운 지옥을 해매다가

잔영(殘影)마저 남기지 않을 때

나의 사랑이 군림한 빛에는
그림자가 없고
망각(忘却)의 더미는
어느 아리따운 소녀의 웃음의 시간처럼
앞질러만 간다.

보케리니는 그가 시립교향악단 반주로 국립극장에서 독주회를
가졌을 때의 레퍼토리의 하나이기도 하다. 의학공부의 짬을 타서
그는 독주회 준비를 했다.

봄이 아직 이른 삼월 십 칠일 날이었다. 그때의 하얗게 긴장되
었던 얼굴은 아직도 앨범에 남아있다.

그는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의학도로서 교향악
단 반주로 독주회를 가진 것을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평도 좋았
던 것이다.

그래서 보케리니는 나에게서는 아프다. 바흐 무반주조곡도 헨델
의 수상곡도 나에게서는 아프다. 형에게 원거리 전화를 걸고 수화
기에다 대고 쫘다는 트로이메라이는 더욱 아프다. 그는 형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참 보구 싶어져서. 어머니의 트로이메라이를
같이 들어, 응?」

하면서 수화기에 대고 첼로를 쫘다는 것이다.

용기가 가고 난 뒤는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언젠가 깨어 용기
의 죽음은 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들어 보았으면! 트로이메
라이(꿈)를 들을 적마다 시인의 아름다운 꿈을 듣지 않고 나는
허무를 듣는 것이다. 그러면 오래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죽자의 시가 상기된다.

客語夢主人
主人語夢客
今語夢二人
亦更夢中人

그 아버지도 가시고 보케리니의 악보를 함께 사준 블라이스 박
사도 가고 너도 가고 나는 슬픈 꿈속에서 산다.

용기의 유물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다. 처음에 옷가지가 오고 다음에 일상품이 오고 또 쓰던 기구들이 오고 책들이 오고 마지막으로 애용하던 첼로가 왔다. 그 사이사이 신시내티 의과대학교수들과 환자들과 친자들 사이에 수없이 편지가 오갔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Cincinnati Ohio 45229라는 우편번호를 보고 울었다. Cincinnati 45229——얼마나 그리워하며 썼던 숫자였는가! 얼마나 기다리고 반기던 숫자였는가. 시간이 가도 새롭고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시계가 오던 날은 다시 안정제를 맞아야 했다.

시계는 열두 시 정각에서 멎어 있었다. 미국의 황야를 달리는 그 하이웨이에서 너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얼은 땅 위에 뒹군 부서진 차 안에서 혼자 죽어갔던 것이다. 네가 죽어가던 그즈음 어머니는 어느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내 목숨,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고 먹고 했던 이 큰 죄——이 큰 죄! 업이다! 무의식중이나마 보속할 수 없는 죄를 어머니는 저질렀다.

우리집에 잘 모이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죄가 많아서요.」

한단다. 죄많은 여인이 자식을 잃는다. 자식의 죽음은 가차없는 단죄(斷罪)가 아니겠는가, 정오 열두 시는 나에게서 절대시(絕對時)다. 단죄의 시간이다. 그때부터 시간은 정지되고 영원이 시작된 것이다. 너에게는 평화의 영원을 기구하며 참회와 애상(哀傷)의 영원을 산다.

대체 시간이 무엇일까. 가물한 혼돈 속에서 창조주가 해와 달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은 흐르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했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시간은 흐른 만큼의 무게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고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년, 십년, 이십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시간의 흔적을 얼굴에 새긴다. 시간에는 실질(實質)이 있는 것이다.

시간은 치유제이며 동시에 배반자란다. 아무리 애끓는 슬픔도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또 시간의 무게는

같은 저울로 달아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 죽지만 하루 동안에 할 것을 다하고 죽는다. 그들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보통 일생에 해당하는 길이일 것이다. 우리 인간이 백살을 산다 해도 영원에서 보면 일순, 수유(須臾)를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하루를 살다 죽으나 백년을 살다 죽으나 당한 자에게는 언제나 미흡하다. 너는 이십 오 년 육개월을 살고 왔지만 수유 속에 영원, 영원 속의 수유를 살고 가고 지금 그 영원 속에 있는 것이다.

네가 떠날 때 어머니가 손수 네 팔목에 채워준 시계는 열두 시를 가리킨 채 영원에 잠겼다. 그 찬 금속의 감각이 슬프구나. 너와 운명을 함께 한 이 시계, 영원히 열두 시를 가리키고 있기에 시간은 나에게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치유제가 되지 못하며 이 비탄의 계절은 바뀌지를 못하나부다.

오랜만에 햇볕이 났다. 어머니는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밖은 바로 앵두밭이다. 네가 어렸을 때 정열을 쏟던 앵두밭이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앵두밭에는 감나무도 있다. 가을에 물든 감들이 꽃보다도 아름답다. 다사로운 해는 최후의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 같다.

꼬마들이 철조망 옆에 숨어 안을 엿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주인이 하루에 몇번씩이나 아이들이 벌려놓는 철조망 구멍을 막지만 철조망의 어느 한 곳은 항상 늘어져 있다. 한놈이 그 늘어진 철조망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다른 한놈이 뒤를 따른다. 무서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은 질겁을 하여 들어갈 때보다 좁아진 것도 아닌데 같은 구멍에 옷이 걸려 허위적거리다가 찢어진 옷의 조각을 철조망에 걸어놓고 빠져나온다. 다른 한놈의 경우는 좀더 나쁘다. 허겁지겁 기어나오다 다리를 쇠가시로 찢긴 모양이다. 그래도 그는 울 수 없다. 필사적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다. 보고 있는 어머니는 손에 땀을 쥘다. 어쨌든 주인이 달려 나왔을 때는 아이들은 흩어지고 없다.

사랑하는 용기야. 이 동네 아이들이면 누구나 이 앵두밭의 모

힘을 가지고 있지. 가을에도 아이들의 구미를 돈구는 것이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앵두가 물들 무렵이면 아이들의 몸에서 상처가실 때가 없었지. 언젠가 네게 목욕을 시켜주며 종아리에 끔찍한 생채기를 보고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었던가.

「무얼 그리 보구 기세요.」

어느새 왔는지 형 호기가 곁에 서 있다.

「아이들을 보구 있었지.」

「하아, 앵두발은 여전히 유혹을 하는군요. 참 신이 났었지요.」

웃으면서 호기도 고개를 빼고 바깥을 본다.

「앵두발에 얹힌 추억도 많죠. 용기는 힘은 세었지만 몸이 약간 둔했지요. 그래서 붙들리는 건 언제나 용기였었죠.」

해바라기 목이 저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참을 잠잠히 서 있던 형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이박사가 용기 기념패와 기념도서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뭐?」

「미국 가시는 길에 신시내티에 들르셔서 뵈터 박사두 만나시구요.」

어머니는 가슴이 뛰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 신시내티라는 말만 들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사진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데 가로가 25센티 세로가 18센티의 낫쇠판에,

용기 김 M.D.를 기념하여

헌신적인 의사,

언제나 그의 환자에게

몸을 바쳤다.

라고 새긴 거랍니다. 도서실은 레지던트실 옆에 만들었는데 아주 조출하면서 내용이 차 있더라요.」

그 큰 대학병원의 벽에 어느 개인을 기념하여 기념패가 붙는 것은 두번째란다. 아직 젊은 의사에 지나지 않았던 용기를 그렇게 기념하여 주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영

광도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어머니의 뺨은 어느덧 눈물에 젖어 있었다.

「우시지 마세요. 다시없는 영광이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다 간 그애를 칭찬해 주세요.」

형의 음성도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애는 훌륭하게 죽었어요. 어머니께는 아직 여쭙지 않았지만요. 그애는 의사다운 죽음을 했었어요. 그애는 유난히 인생 계획을 치밀하게 했었지요. 그 계획대로 그는 2월에 스테이트 보우드 시험을 보러 가다 죽은 거예요.」

이때껏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의 최후의 모습을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스테이트 보우드 시험을 아무 데서나 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칠 수 있는 주는 오십 주 중 미시건 주 워싱턴 주 등 세 주뿐이란다. 용기는 가장 가까운 미시건으로 가기로 하였다. 이삼일 전 그는 형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형, 나 며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래.」

「왜?」

「나 스테이트 보우드시험 애드미션이 나왔어. 전형이 까다롭기 때문에 애드미션이 나오기 참 힘들는데 나왔어.」

용기는 무척 흥분하고 있더라.

「너 비행기로 가야 한다. 길이 멀어 미끄러울 테니깐.」

「걱정 마, 비행기로 갈 테니깐.」

그런데 그는 비행기로 가지 않았다. 미련할 정도로 고지식한 그는 시험을 보러가는 전날 당번을 맡았다. 그런 경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번 같은 것은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용기는 당직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단다. 두 시 가까이 되어 눈을 붙이려 하는데 응급환자가 들어왔다. 환자는 이미 유산의 경험이 있는 열 여섯 살의 미혼(未婚)의 임부(妊婦)였다. 그는 당뇨병 환자이기도 했다. 당뇨병 환자가 유산을 할 경우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온단다. 이 행실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어린 임부는 다시 유산기가 있어 몹시 고통을 하였다. 그는 체면없이 울고불며 범석을 떨었다. 심한 경우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 이 환자 때문에 용기는 최선을 다했다. 미혼의 소녀 임부가 겨우 고비를 넘겼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용기는 밤을 꼬박 밝힌 것이다.

그는 잘 시간이 없었다. 입이 갈갈하여 식욕도 없었으리라. 시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길을 떠났다.

허허벌판을 달리는 미국의 고속도로는 너무나 단조롭다. 한잠도 자지 못한 지친 그에게 수마(睡魔)가 덮쳤다. 반은 자면서 운전대를 붙든 그는 쉬어갈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졸음에 시달려 머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구 달렸다. 드디어 잠에 빠져 핸들에서 손을 놓았다. 백 마일 가까운 속도로 달리던 차는 중간선을 넘어 건너편 독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날따라 하이웨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애는 혼자서……」

형은 목이 멘다. 우는 소리로,

「어머니에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급히 달려갔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더군요. 얼굴이 약간 부어 있을 뿐 외상은 없고 곧히 잠든 것 같았어요. 머리를 다쳤던 거죠.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혼수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구 있었어요. 수술 준비는 완전히 되어 있었어요. 신시내티 의과대학 전체가 뒤집힐 정도였지요. 그애는 깨나지 않았어요. 남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던간에 저는 그애가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죽어서 뵈니까. 제가 울면서, 용기야 형이 왔다. 발가락을 움직여보렴, 했더니 발가락을 움직이더군요. 아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글썄 발가락을……」

형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 충격을 드리지 않으려구 여태껏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눈물을 닦고,

「그래두 언젠가는 알려드려야 하는 일이구……」

몸부림치며 우는 어머니의 등을 쓸며,

「그애는 참 사랑을 받았었나 봐요. 모든 것이 끝난 후 그애가

기속하구 있던 병원의 숙소로 갔었지요. 병원 사람들이 모두 정렬하여 숙연한 태도로 맞이해 주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두서넛 소리를 내구 울더먼요.」

흐느끼면서 형은 말을 이었다.

「용기 방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먼요. 글래스에 기르고 있는 옥파가 바닥에까지 뿌리를 내렸더먼요. 그리구 벽에 붙은 거울에 커다란 종이가 스카치 테프로 붙여져 있는데 빨간 색연필로 커다란 글씨가 써어 있었어요.

닥터——

시간이 없어 한잠도

못 자고 급히 떠납니다. 환자를 부탁드립니다. ——김
최후의 순간까지 환자를 염려한 거죠.」

형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윽고 그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다.

「결혼두 하지 았구 임신을 한 그 못된 계집애가, 열 여섯밖에 되지 았은 그 계집애가 유산을 했다구 우리 용기가……」

모자는 다시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하필이면 그날 환자가 들어왔단 말인가! 용기야 어찌자구 밤을 새구 쉬지도 았고 떠났단 말이냐.

어머니는 울고 또 울었다. 울다 지쳐 아무렇게나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머니 감기드시겠어요. 괜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
요.」

착한 호기가 큰죄나 진 것처럼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용기의 무덤에는 지금 국화꽃이 한창이다. 아직 잔디는 파래서 국화의 노란빛이 더욱 두드러진다. 양지바른 비탈인 까닭인지 해가 따갑다. 그러면서 바람이 차다. 간혹 산새 소리가 들릴 뿐 깊은 고요가 깃들고 네 깊은 잠을 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는 자주 너를 찾는다. 비석을 닦아주고 잡초를 뽑아준다.

꽃도 자주 갈아준다. 향을 피우고 너의 영원한 광명과 평화를 천주께 빌며 언제나 운다.

육체는 영혼의 영어(囿圍)란다. 그래서 죽으면 태워 재를 만들어 허공에 흩어 버리고 그 영어를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부활할 육체를 생각할 때 나에게는 너의 주검마저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용기야! 아들의 무덤을 가꾸어야 하는 이 기막힌 역리(逆理)는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아프다. 네 무덤을 찾는 아가씨가 있다고 들었다. 누구인지는 모른다. 간혹 내가 갖다놓지 않은 꽃이 있을 때가 있다. 나는 그 아가씨가 누군지 알고 싶고 보고 싶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의 생애에 어떤 얼룩을 지을까 저혀되어 참는다. 그러면서 간절한 사랑을 그 이름 모르는 아가씨에게 느낀다.

끔찍한 일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누워 있을까 하고 애처로와진다. 흙이불이 너무 무겁겠지. 감감하겠지. 어머니는 울면서 네게 커피를 따라주고 그 커피를 마신다.

추석을 앞두고 나는 지금 네 무덤을 가꾸러 왔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다. 비석을 정성껏 닦는다. 까만 비석은 닦으면 윤이 난다. 나는 수없이 읽었던 비문을 또 읽는다. 비문은 네가 마지막 편지에 쓴 말, The deeper and deeper of everything between us 를 바탕하여 형이 지었다.

우리의 사랑이 천주 안에서
깊고 또 영원히

네 자신이 자신의 비문을 지은 것이지.

비석을 윤이 나도록 닦고 상석(床石)을 말끔히 훑친 후 물러서서 묵도를 한다.

넘어가는 햇살이 갓 닦아놓은 매끄러운 검은 돌에 어른거린다. 비문을 새긴 글씨와 비면은 평면이 같지 않은 까닭인지 햇빛은 검은 돌을 깊고 신비로운 보석같이 빛나게 하고 글씨 언저리에서

가볍게 하늘거린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뜬다. 그리고 보았다. 마지막 햇살이 비면을 비치고 있었다. 바람 까닭인지 해 자체의 움직임 까닭인지 검은 비면은 짙은 보랏빛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른거리는 햇살을 무너놓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황홀하도록 아름다웠다. 그러나 모두 일순의 일이었다. 이내 비석은 다시 검은빛으로 돌아가고 잠잠히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꿈이었던가. 환각이었던가. 실로 신은 변해가는 것, 소멸해가는 것에만 아름다움을 주시나부다.

너의 무덤 앞에 서서 다시 존재와 무를 생각한다. 너는 가고 없지만 너의 추억은 가득히 충만해 있다. 너는 「무(無)」가 된 것이 아니고 「부재(不在)」 중인 것이다. 네가 사랑하던 발레리의 「풍부한 부재」를 이즈음처럼 절감한 때는 없다. 이 비탄과 윤희의 계절 속에서도 풍부한 부재는 얼마큼의 위안을 주는 것이다. 너는 비면 위에 황홀하게 비치고 간 햇빛의 일순이었고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도 아름다움의 추억은 남았다.

「차라리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한번도 한 일이 없다. 존재는 귀하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다. 너 까닭에 이 괴로움, 이 아픔을 갖지만 너는 태어나야 했고 많은 추억을 남겨주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슬픔과 아픔도 남겨야 했다. 그것은 섭리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신의 섭리에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잠잠한 검은 비석 앞에 서서 종전의 그 황홀의 일순을 상기하면서 너의 일생을 조용히 되살리는 어머니의 뺨은 그래도 젖어 있다. 어둠이 조금씩 스며든다. 나는 산을 내려가야지. 너를 두고.

산비탈을 내리며 너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가만히 뇌인다.

The deeper and deeper of everything between us(우리 사이 모든 것이 깊어만 가네).